

2009년도 LPG산업 정책방향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양해구 사무관

2008년 액화석유가스 부문은 LPG 가격이 이 슈로 부상하여 힘든 한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8년 7월 이후 국제 LPG가격이 사상최고가를 기록하고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LPG가격이 연말까지 가파른 상승세로 이어져 LP가스 소비자들이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008년은 LPG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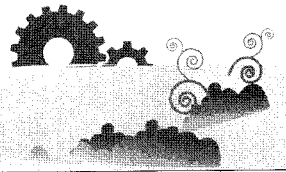
서민계층의 연료비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 LPG가 52개 생필품 대상 품목으로 지정(08.3.25)되어 프로판 개별소비세를 40원/kg→20원/kg로 인하(08.3.28)하였으며, 할당관세 무세화(1.5%→0%)등 조세감면 추진을 통해 LPG 가격인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LPG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08.4.17)하여 LPG 연료사용 제한에 경차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차에 대해 유류비 부담이 적은 LPG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유인을 증가시켜 경차시장이 활성화되고 LPG 신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05.11월부터 추진하였던 배송센터 시범 사업을 완료(07.4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작년 이어 LPG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LPG 수요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겠으며 특히,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국내 LPG는 1960년대 도입된 이후 서민생활의 중심 연료로 자리를 잡아왔으며 현재도 전국 730만 가구의 취사·난방용 연료 및 230여만대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에너지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LPG산업은 얼마전부터 시작된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와의 가격차는 2배까지 벌어져 소비자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동시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유가 상승이라는 대외 요인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지만,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단순한 유통구조를 가진 도시가스에 비해, 수입·정유사에서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에 이르는 LPG의 복잡한 유통구조 역시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 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에 실시한 “소형용기 공급 효율화 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용기 직판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사항 등 개선시 요구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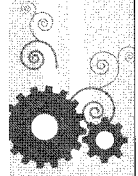
제도 정비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 해결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의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용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LPG 공급형태 다양화를 통한 사업간의 경쟁촉진 유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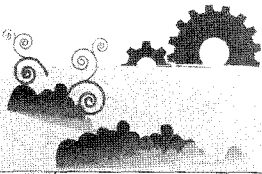
“ LPG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LPG 수요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겠으며 특히,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LPG 자동차 보급국가로서 LPG자동차 제작기술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4월 경차 및 하이브리차에 대해서 일반인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금년 2월부터 신차가 출

시될 예정이고, 경유화물차에 대한 LPG 개조사업도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LPG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LPG 이물질과 잔류물질 등에 의해 LPG 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LPG 품질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LPG 차량 보급 확대 및 소비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국내 유통단계별 자동차용 LPG의 품질평가와 잔류물질, 연료시스템의 이물질 성분분석, 차량 연료공급시스템의 부식성평가를 통한 LPG 이물질의 생성 및 원인의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LPG 차량의 품질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1년 LPG 가격자유화 이후, 수입·정유사가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LPG 공급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LPG 가격결정에 반영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해 “LPG 공급가격의 원가분석을 통한 가격 적정성 확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도출하고 가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LPG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중소형 LPG 상용차, DME 실증·시험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LPG 경쟁력제고 및 신규수요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급년에는 “중소형 LPG 상용차 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엔진을 탑재하여 시운전 실시 및 차량 보급정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DME 사업도 상반기 중에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법령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험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LPG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LPG는 청정에너지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LPG는 휘발유 보다 12%, 경유보다는 16% 적게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깨끗하고 편리한 LPG는 기

후변화협약의 대안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구현하는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의미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여 LPG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LPG 업계의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매년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수요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도시가스 보급이 꾸준

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PG업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LPG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LPG업계 내부적으로 유통구조 선진화, 배송센터 도입,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은 LPG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2009년 한해에도 가스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직도 LP가스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택시, 장애인 등 서민계층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인 만큼 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LPG와 천연가스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LPG와 천연가스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